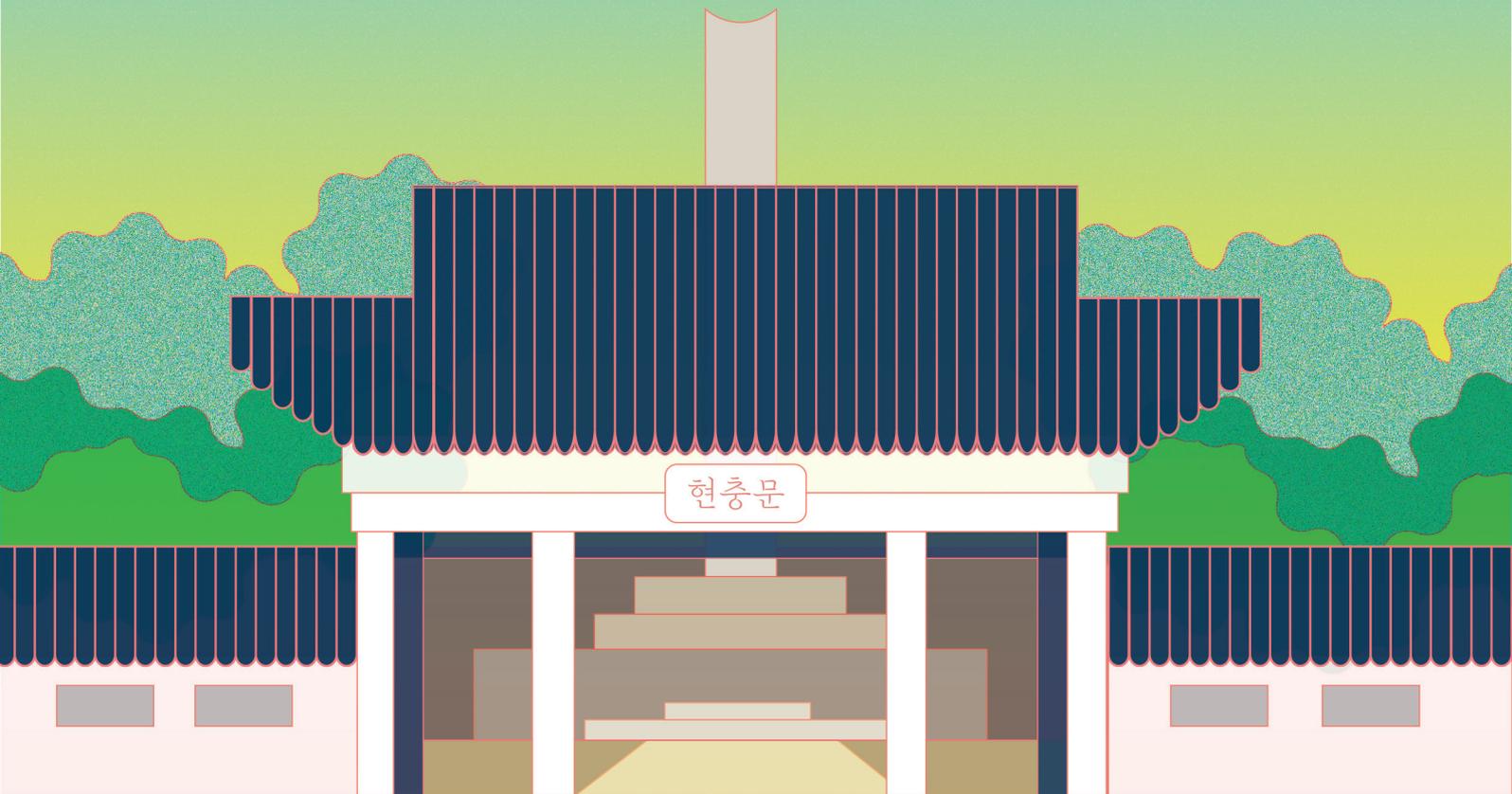


# 충혼

Vol.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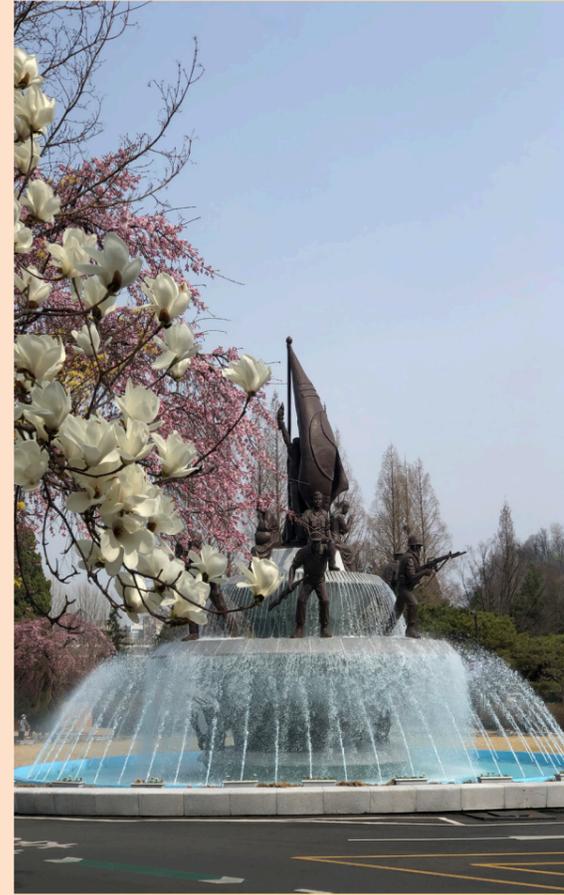
## 목차

- 4 현충원의 봄
- 6 현충원 프로그램
- 8 현충원 자원봉사자 인터뷰
- 10 의거 100주기 특집 김상옥 의사
- 14 문화 관련 숨은 안장자 이야기 주시경
- 18 문화 관련 숨은 안장자 이야기 박병선
- 23 상반기 현충원 행사 사진
- 25 아티스트 소개
- 26 컬러링 페이지

# 현충원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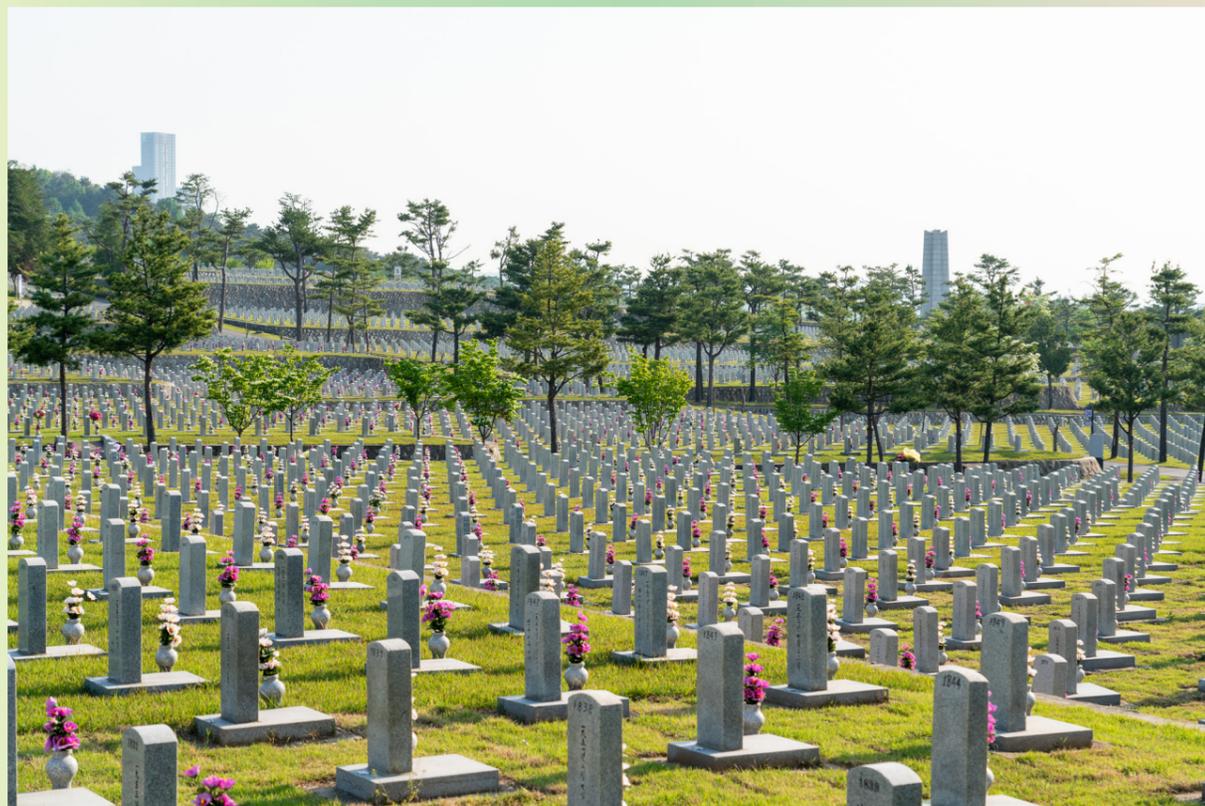
현충문



충성분수대



충훈승천상



장병묘역



이팝나무

## 현충원 프로그램



태극기 그리기 활동



현충탑 참배

### 유아체험 프로그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아들이 현충원 탐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충탑 참배, 태극기 영상 관람 및 색칠하기, 교구 조립 등을 할 수 있다. 문의는 02 811 6342로 가능하다.

\* 비매품입니다



현충원 블로그와 SNS를 통해 이벤트를 확인해주세요.

## 현충원 자원봉사자 인터뷰

###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 해설사 황수영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처음 도입한 자원봉사 해설사 모집에 응시하여 2014년 7월부터 교육과 시연을 거쳐 2014년 9월부터 제1기 자원봉사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Q2. 현충원에서 해설사로 근무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09년부터 동작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현충원 지킴이(질서 유지 및 환경보호)로 주 1회 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해설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현충원을 방문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묘역 안내와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 Q3.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수행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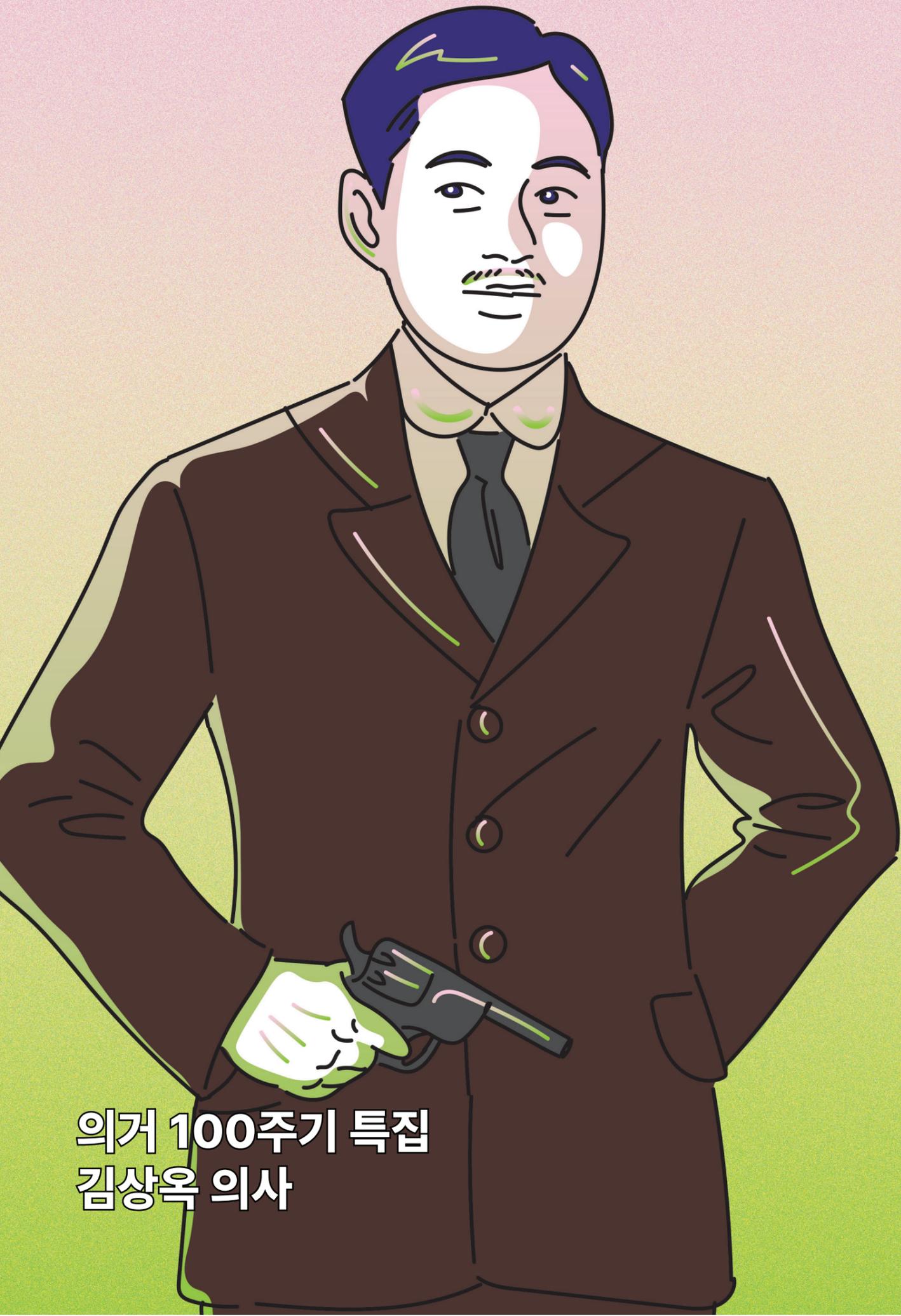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 수호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 분들에 대한 감사와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충원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열린 호국공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Q4. 현충원 해설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독립유공자에 대한 설명에 동감을 표하고 호응해주시는 분과 목이 마를까봐 조심스레 주스와 과자를 건네주는 어린이의 해맑은 얼굴에 희망을 봅니다.

### Q5. 해설사님에게 현충원이란?

옛날 부모님 묘에서 시묘하듯이 현충원에 안장되신 선열과 호국영령을 시묘한다는 생각입니다.



의거 100주기 특집  
김상옥 의사

## 의거 100주기 특집 김상옥 의사 송고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납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1922년 11월 임시정부 요인들과 작별하면서-

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1월 12일 밤 8시경,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큰 소리를 내며 폭발하였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을 이루던 경찰력의 핵심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등 탄압에 앞장을 섰던 곳입니다.

일제는 범인 검거에 나섰고 범인으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김상옥 의사였습니다.

본래 김상옥 의사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의사가 운영했던 철물점에서 판매한 말총 모자는 가볍고 저렴하여 크게 유행하였고 김상옥 의사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하는 등 일본에 저항하고 있었지만 김상옥 의사가 본격적으로 생업조차 미뤄두고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은 3·1 운동이었습니다. 이후 의열 투쟁을 지향하는 비밀 결사 암살단을 조직하는 등 무력 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에 앞장섭니다.

다시 1923년 1월로 돌아가겠습니다. 암살단 창립 이래의 숙원인 종로경찰서를 폭파한 의사는 거사를 마치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매부 고봉근의 집에 은신합니다. 1월 17일 새벽 5시, 종로경찰서의 경찰대가 고봉근의 집을 포위하고 김상옥이 자고 있던 건넌방에 들이닥칩니다. 이 때 의사는 권총을 들고 뛰어나오며 종로경찰서 유도 사범 다무라를 사살합니다.

의사는 종로 효제동에 있는 동지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탐문 끝에 그의 은신처를 파악한 일제 경찰은 경찰서의 무장 경관과 기마대 1천여 명을 동원합니다.

일본 경찰 결사대가 지붕을 타고 은신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 경찰 한 명이 방으로 들어와 벽장을 열어젖히자 벽장 속에 은신해있던 김상옥 의사는 그를 사살하고 벽장과 붙어있는 벽을 뚫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 손에 각각 권총을 든 의사는 담벼락을 방패 삼은 채, 16명 이상의 일본 경찰을 홀로 사살 합니다. 치열한 접전 3시간 반 끝에 마침내 총알이 한 발만 남아 자신의 머리를 쏘아 자결하고 맙니다.

당시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그 뜻과 공로를 높이 인정 받아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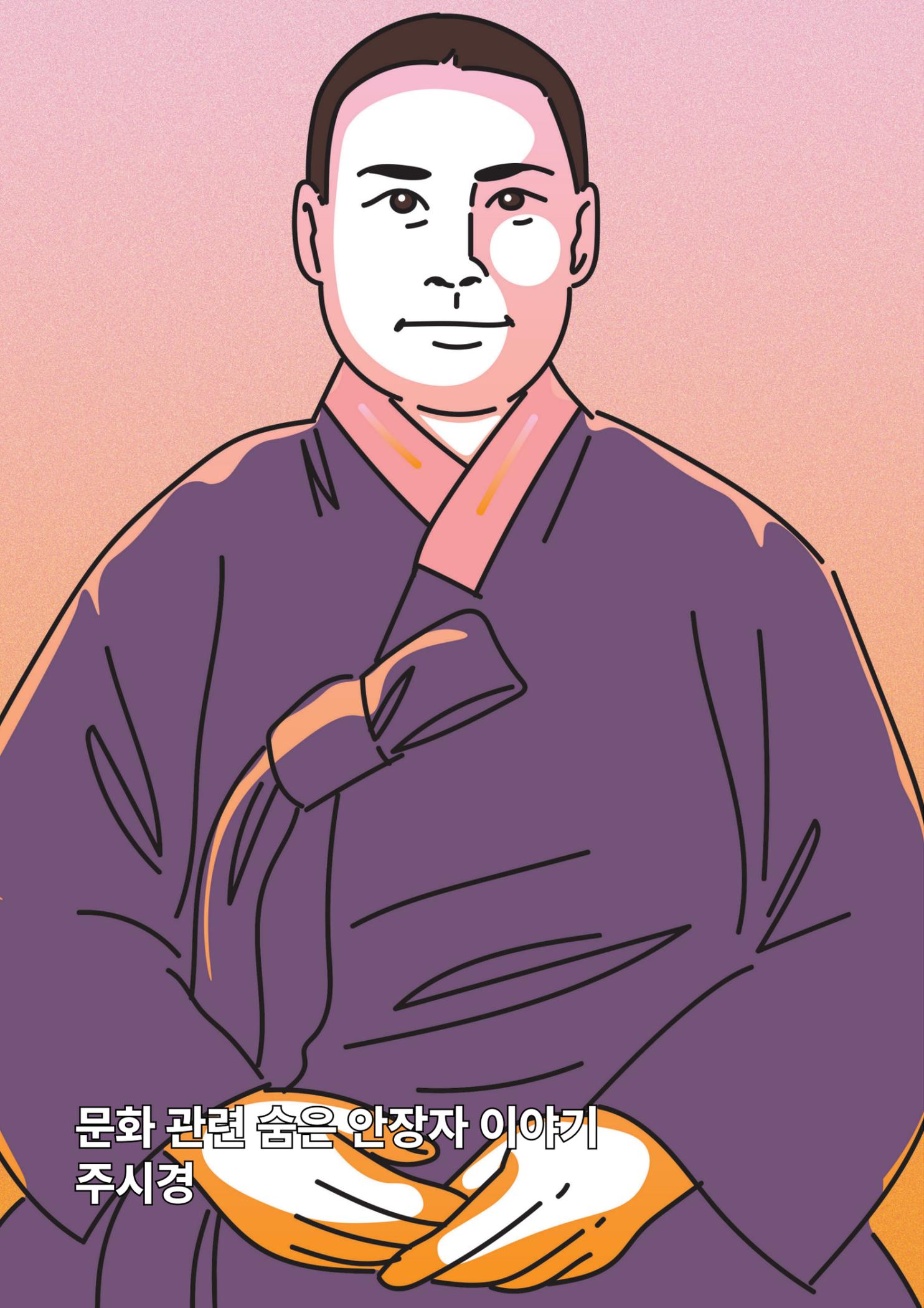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계단을 올라가면 맨 앞 줄에서 김상옥 의사의 묘역(독립유공자-5)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용기와 기개를 닮은 듯 무소의 뿔처럼 자라난 소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바로 옆에는 하얼빈 주재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여 일본 총영사와 일본 경찰을 사살하다 순국하신 김만수 의사(독립유공자-10)가, 길을 사이에 둔 그 옆에는 을사오적 암살을 시도하신 기산도 의사(독립유공자-74)가 잠들어 계십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사업가로 평범하게 삶을 안위할 수 있었을 그러나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는 쪽을 선택한 김상옥 의사의 용기는 후세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의 숭고한 삶은 한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김상옥 의사 의거 100주기 우표  
제작 우정사업본부  
자료제공 (사)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상옥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 <기일:기억의 날 "당신을 기억합니다"> 김상옥 편



## 문화 관련 숨은 안장자 이야기 주시경

### 한힌샘 주시경

올해는 한글이 창제된 지 577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그 다음 개항과 식민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글을 지켜내려던, '크고 바른 글'이라는 뜻을 담아 한글의 이름을 지은 학자가 있습니다. 한힌샘 주시경 선생입니다.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우며 신학문에 눈을 뒀던 선생은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선생의 눈에 띄어 독립신문사 회계사무 겸 교보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은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순한글과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순한글 신문의 제작에 종사하게 되자 선생은 그 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국어 교육을 통한 애국 계몽 운동을 통하여 나라의 자강과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선생은 국어 야학과 국어 강습소, 조선어 강습원을 개설하는 등 한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몹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경술국치 후에는 숙명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 9개의 학교에서 가르쳤고 일요일에는 조선어 강습원에서 후진을 양성하였습니다. '주보따리' 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신식 학교들을 동분서주하며 주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학회와 강습소의 명칭 또한 각각 조선 언문회(배달말글몸음), 조선어 강습소(한글배곧)로 변경되어야 했지만 선생은 1911년에 강습소를 조선어 강습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습원에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연구과를 두는 등 상당한 내용과 체계를 갖춘 국어 학교로 발전시켜서 이곳에서 한글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생은 우리말을 핵심으로 한 국어 문법의 체계화를 연구하였습니다. 대표적 저술은 여러 학문적 축적을 담은 <국어문법>(1910)입니다. 이 책은 독자적으로 개척한 국어의 문법과 특징을 기술한 문법서로 국어의 특성에 입각한 음운·품사·구문·어휘의 4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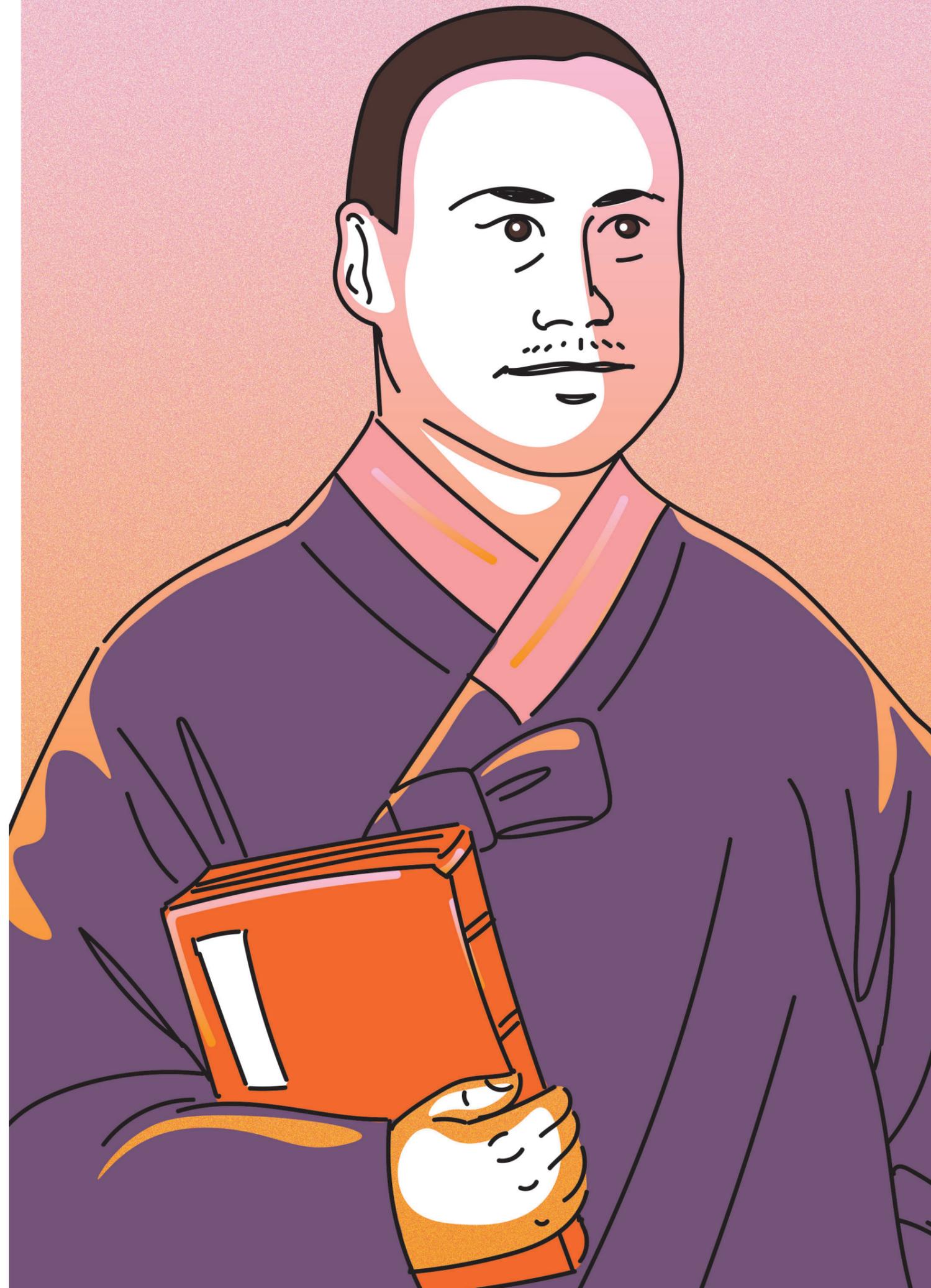
선생은 한글 연구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의 소리>(1914)를 저술하는데 이 책은 구조언어학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세계 최초로 창안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고나)의 발견, 형태론에서 뜻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닛씨)의 발견은 서구 언어학보다 수십 년은 앞선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1914년에 39세로 사망한 후에는 강습원 출신 제자들이 강사로 나서 수업을 했지만 결국 조선어 강습원은 전체 초등과 1회, 중등과 6회, 고등과 5회 졸업생을 배출한 것을 끝으로 1917년에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계 국어 강습소, 국어 강습소, 조선어 강습원 등을 수료한 강습생들은 500여 명에 달했고 그 중 이병기, 권덕규, 최현배, 정열모 등이 조선어 학회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한글 전용, 문법적 형태를 살린 표기, 가로쓰기 등은 선생이 현대에 남긴 유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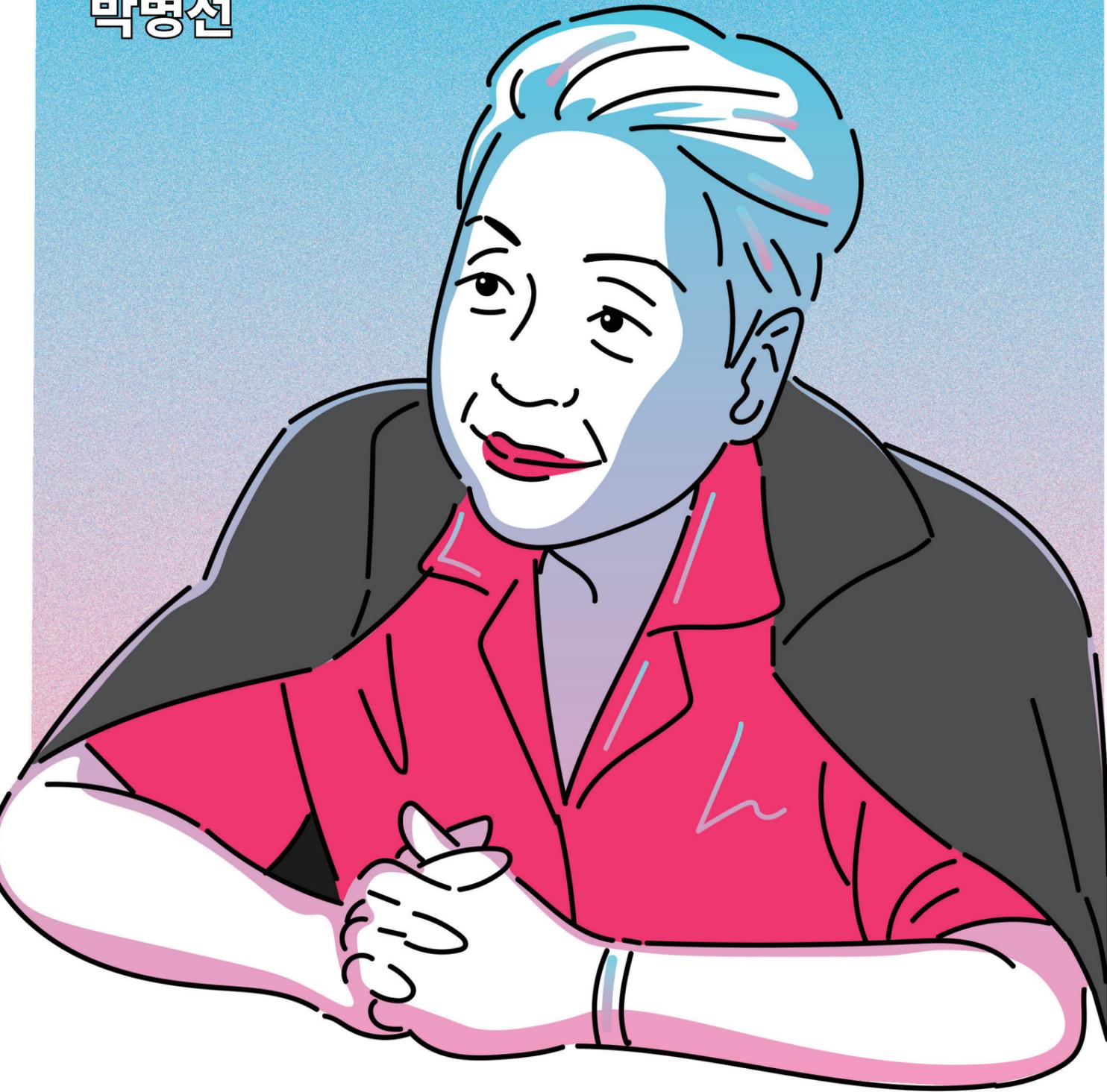
'한힌샘'. 순우리말인 선생의 호는 크고 맑은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호처럼 한글이라는 커다란 강을 이루는 크고 맑은 샘을 끊임없이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선생은 1978년 문화 훈장 금관장, 1980년 건국 훈장 대통령상을 수여받았습니다. 1981년 12월 12일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국가유공자 제2묘역에서 선생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는 길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며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시경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 <'현충원 해설사가 들려주는 안장자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을 지켜내신 주시경 선생'>



## 문화 관련 숨은 안장자 이야기 박병선



### 박병선 박사, 직지와 의궤를 찾아나다

**내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현전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백운화상이 1372년에 제자인 법린과 함께 저술했다고 전해지며 흥덕사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1세기 초까지 최초로 조선에 주재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가 <직지>를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가서 파리의 경매장에 내놨고, 이것을 파리의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가 낙찰받습니다. 앙리 베베르는 이것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직지>의 금속활자본이 프랑스로 흘러가게 된 연유입니다.

박병선 박사는 192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학자의 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고 1955년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유학 비자를 받아 프랑스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인양요 때에 약탈되었던 <의궤>를 찾으라는 이병도 교수의 당부를 잊지 않고 프랑스 국립 도서관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였고 지하 수장고와 여러 창고에서 3천만 종이 넘는 장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박사는 한국을 떠난 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직지심체요절>을 도서관 한 귀퉁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박사는 1972년부터 <직지>의 고증을 시작합니다. <직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독일 구텐베르크 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고활자본이라면 역사적 공헌이 크다."는 프랑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면"을 면하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박사는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임을 고증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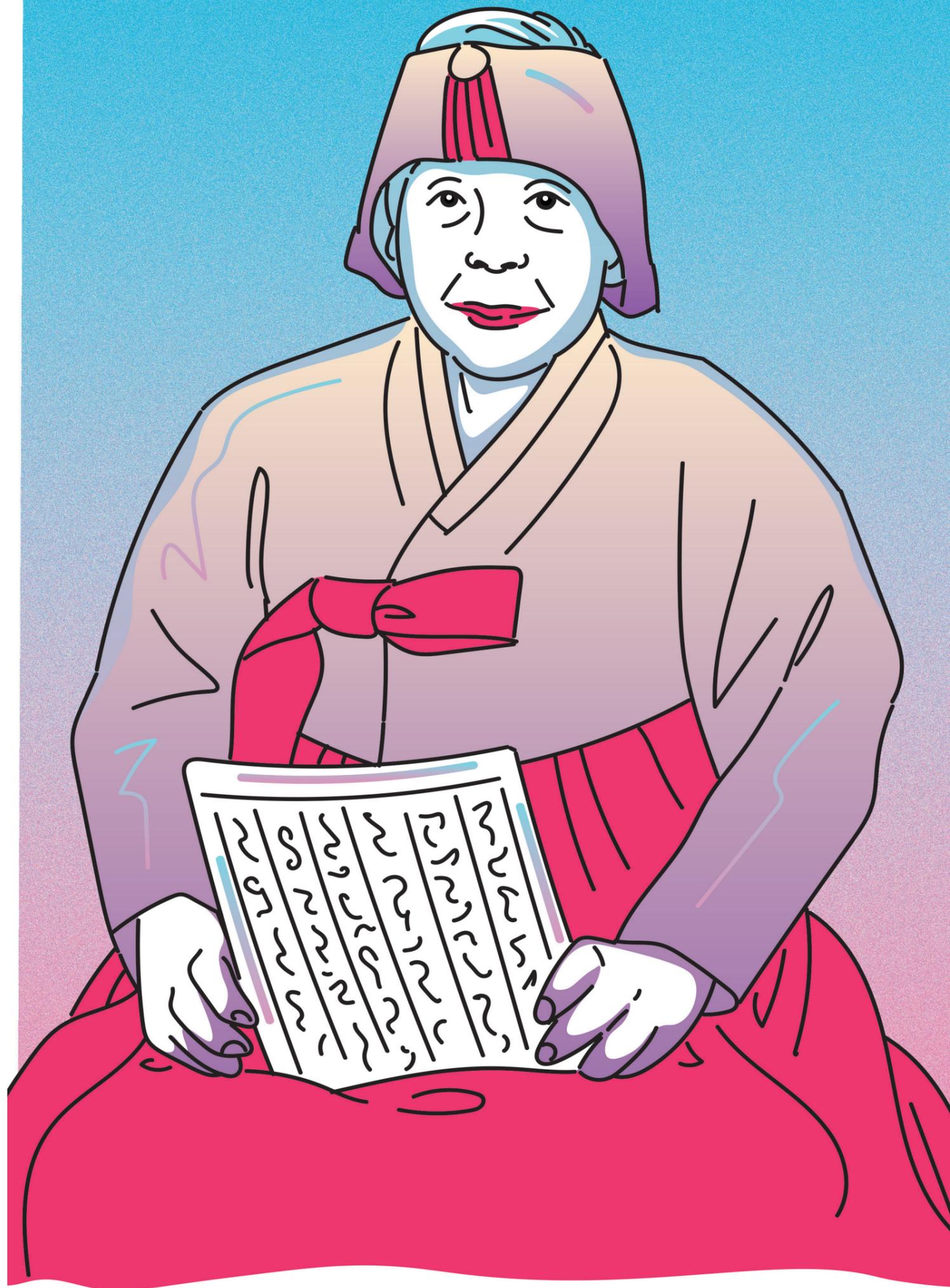
그러나 연구는 처음부터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인쇄술을 연구하는 학문인 서지학이 막 시작되려던 단계였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인쇄사 관련 책을 겨우겨우 찾아서 활자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지우개, 흙, 도자기로도 만들다가 유리창이 다 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박사는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마침내 증명했습니다. 박사의 연구가 인정받아 <직지>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고활자본이라면-'이 '고활자본이다.'가 된 것입니다.

이후 박사는 병인양요 때 약탈을 당한 <외규장각 의궤>의 행방을 베르사유에 있는 파리 국립 도서관 별관 창고에서 찾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년간 297권의 <의궤>를 열람하고 내용을 정리하며 반환 운동을 펼칩니다. 박사의 끈질긴 노력과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의궤>는 프랑스 군대에 약탈된 지 145년 만인 2011년 5월에 영구 임대 형식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박사는 귀중한 문화재 발견과 반환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1999년 대한민국 문화 훈장, 2007년 국민 훈장 동백장, 2011년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직지>와 <의궤>의 발견 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가 1919년에 머물던 청사를 찾아내었고 프랑스에서 본 한국 3.1 운동 자료, 독립운동사를 수집하였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힘썼던 박병선 박사는 2011년 암투병 중에도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에 <의궤>의 반환을 보시고 그 해 11월에 돌아가신 박병선 박사는 국립서울현충원 제1충훈당 108실 075호에 안치되어 계십니다.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병선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 <서울현충원 해설사가 들려주는 숨은 영웅 이야기 - 박병선 박사(1923~2011)>  
문화재청 <'직지심체요절'의 진면모를 밝힌 박병선 박사 (2009.4.10.) >  
동아일보 인터뷰 <외규장각 처음으로 발견한 박병선 박사의 못다한 이야기! (2011.04.14.) >  
글로벌 출판 <직지와 외규장각 의궤의 어머니, 박병선(2012.1.6.)>



총이

현이

# 그립톡



## 상반기 현충원 행사



4월 5일 신춘음악회 '봄의 왈츠'. 군악대대, 소프라노 박혜림, 성악 앙상블 라 클라쎄, 배우 박해미가 출연하였다.



4월 8일 진행된 '특별 군악·의장 행사'. 사물놀이패와 전통무예, 동작시범 등을 진행하였다.

현충원 블로그와 SNS를 통해 이벤트를 확인해주세요.



4월 8일 현충지에서 열렸던 '작은 음악회'. 군악대대의 노래를 듣고 마술을 구경할 수 있었다.



5월 20일 '호국 문예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아티스트 소개

### <라 클라세 (La Cla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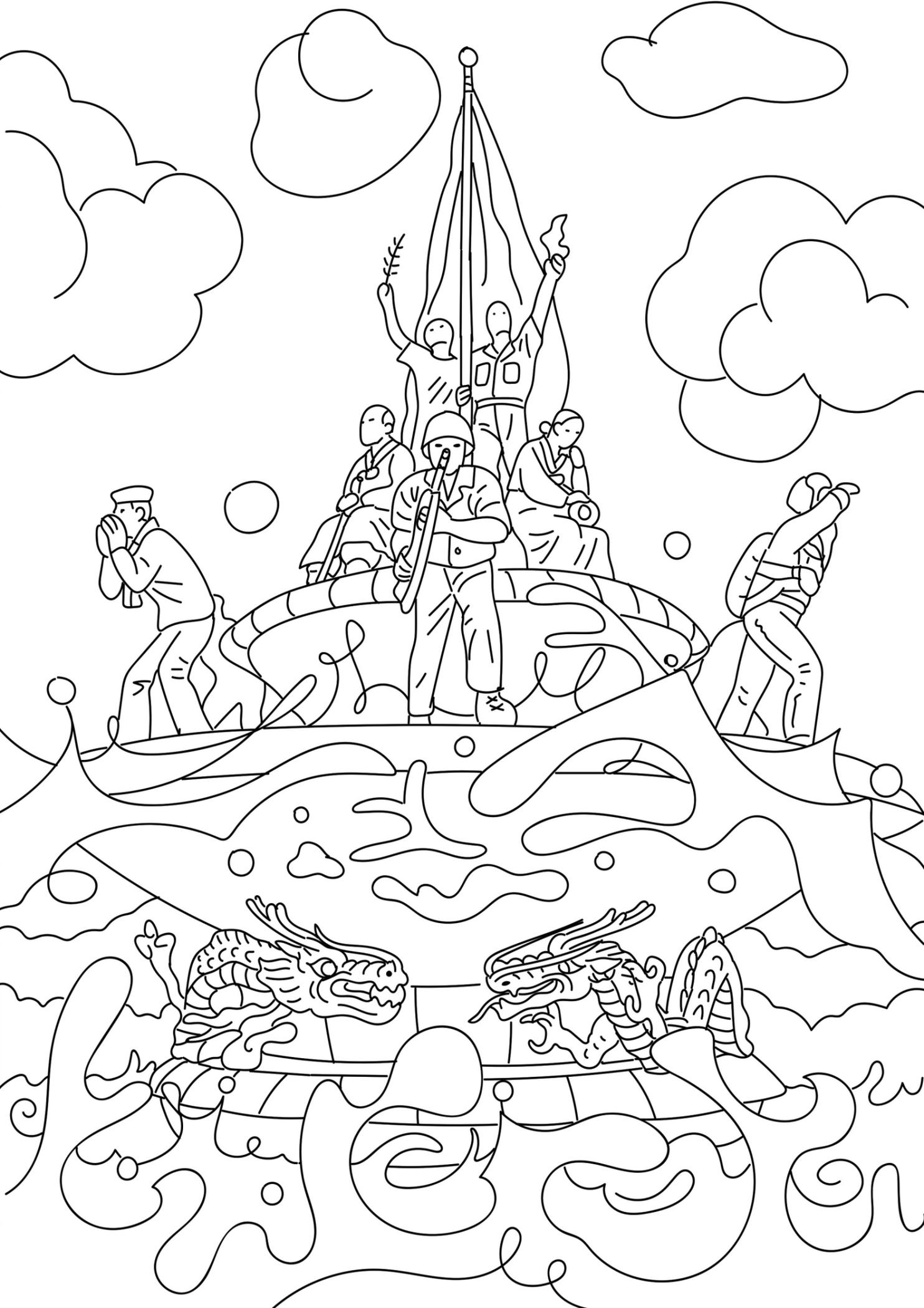
Q. 성악 앙상블 <라 클라세 (La Classe)>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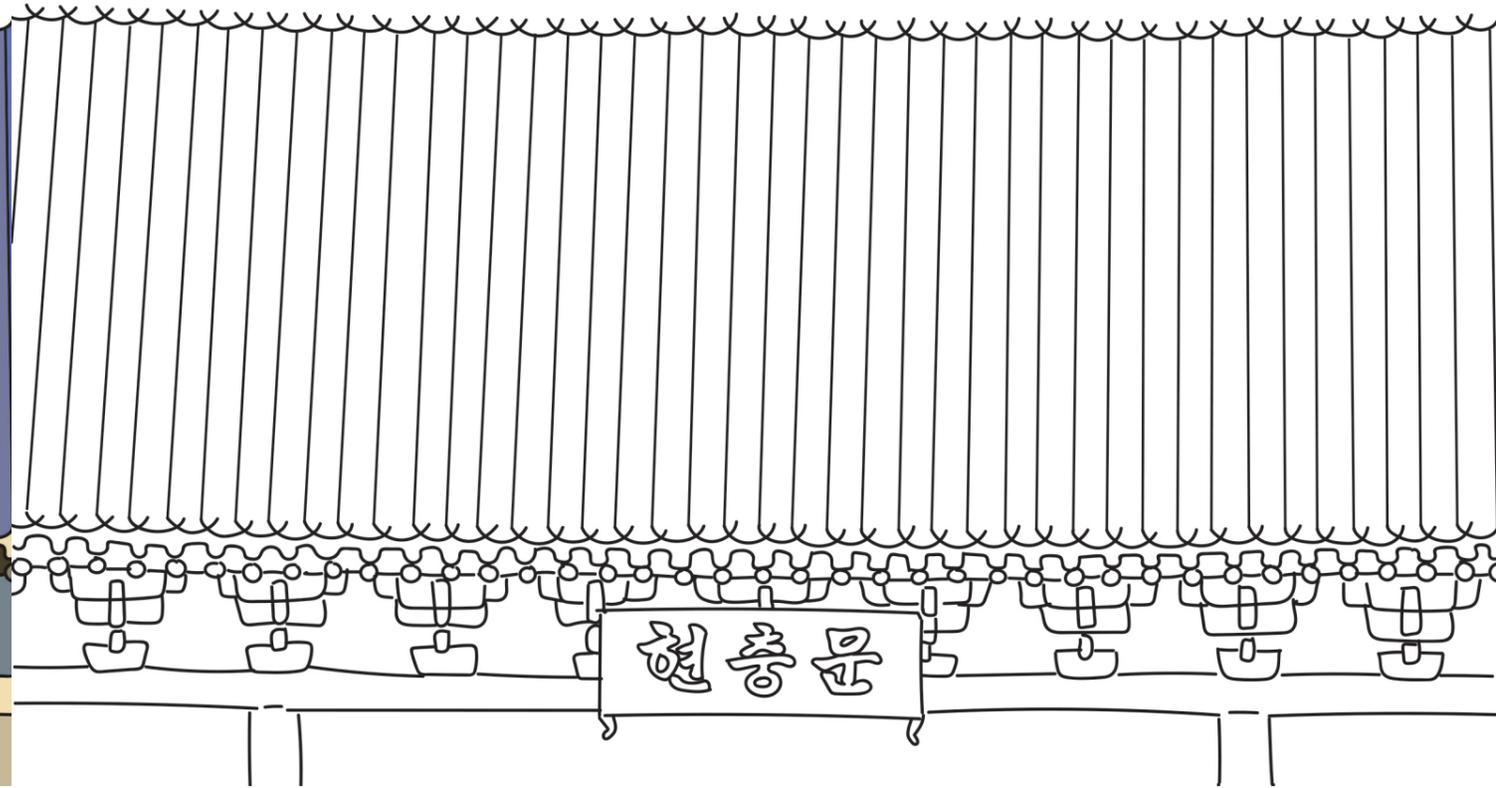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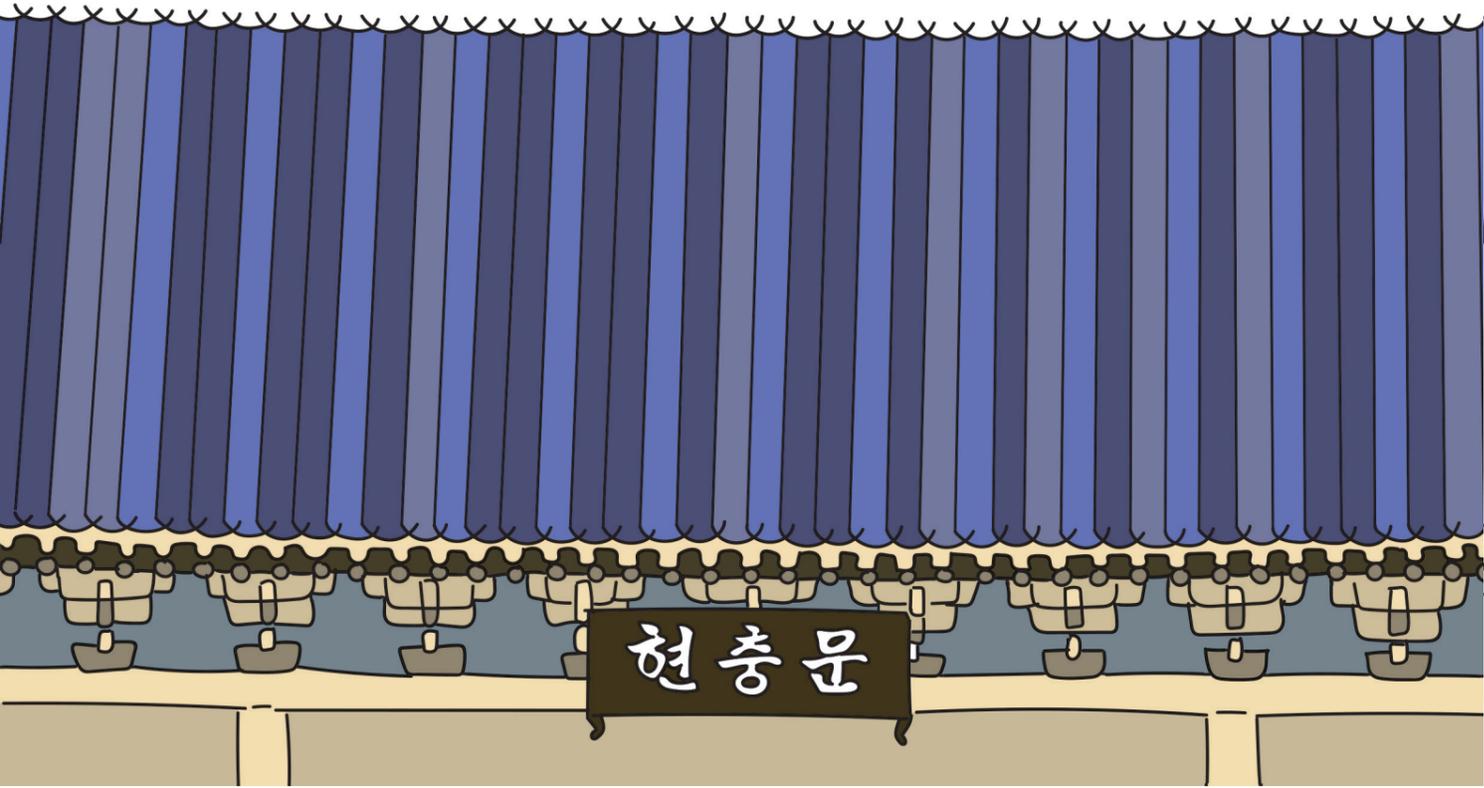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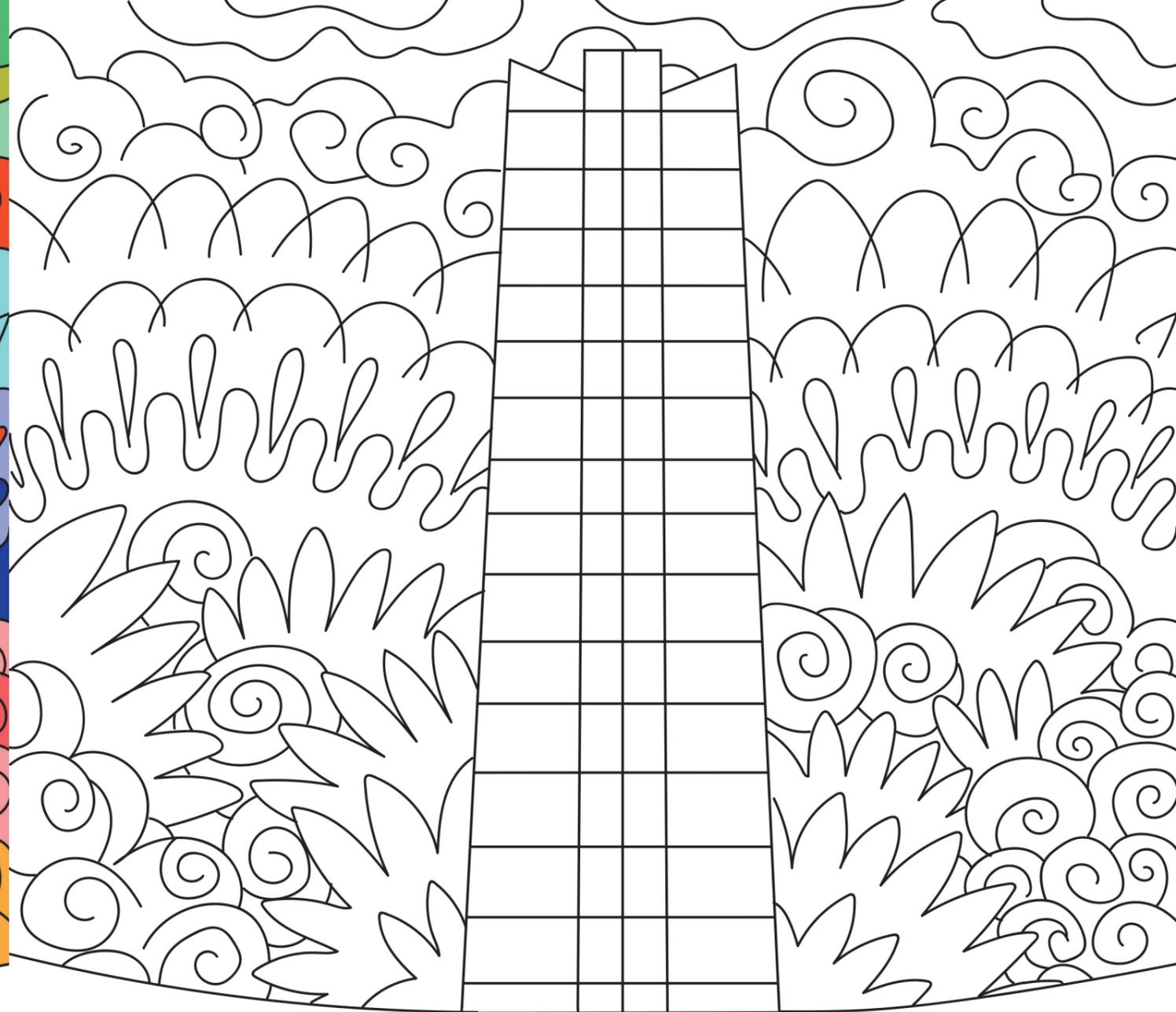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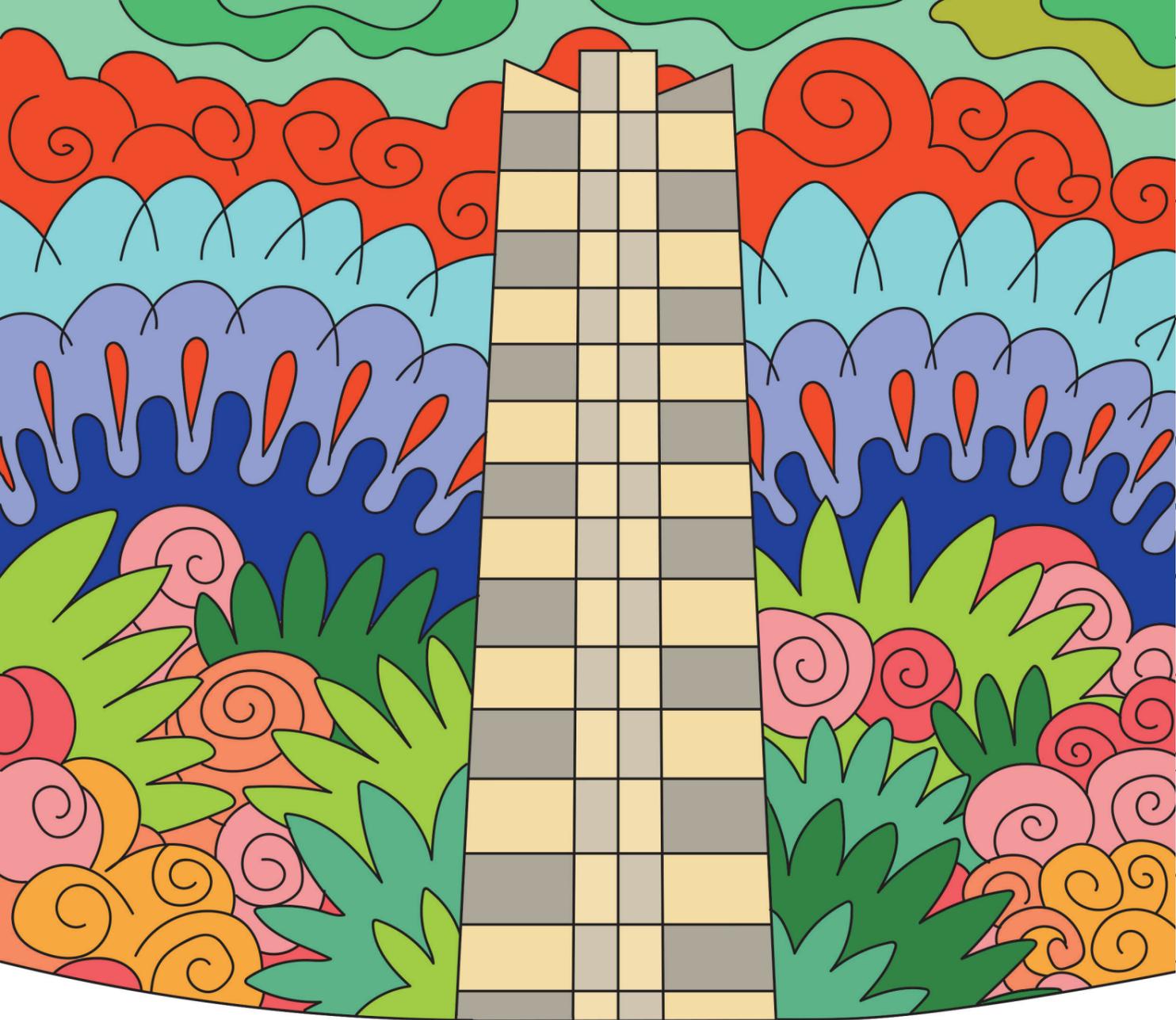
<라 클라세 (La Classe)>는 이탈리아어로 클래스가 높은, 프랑스어로 멋지다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2017년 결성되었고 클래스가 다른 남성 성악가 8명으로 구성된 보컬 그룹이며 멤버 전부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오페라 주역가수들입니다. 클래식이 딱딱하다는 편견을 없애고자 오페라, 크로스오버, 팝송, 가요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공연, 기억에 남고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을 지향합니다. 멤버로는 바리톤 오유석, 테너 윤승환, 베이스 이세영, 테너 황태경, 바리톤 최은석, 테너 이상규, 테너 이성구, 테너 구분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국립서울현충원 음악회 '봄의 왈츠'에서 Volare와 Queen의 Bohemian Rhapsody를 열창하셨어요. 공연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5일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봄의 왈츠'라는 제목으로 펼쳐진 국립서울현충원 신춘음악회 무대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이거나 국경일에 추모의 의미를 가진 음악회에는 여러 번 참여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목처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아름다운 계절에 의미있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여서 신선했고 비록 곳은 비가 내려 실내로 장소를 옮겨야 했지만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을 보며 현충원 음악회가 이미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멋진 기획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라 클라세 (La Classe)>의 공연은 국립서울현충원 유튜브(@HEYLHY)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봄의 왈츠'에서 멋진 노래를 들려주시고 인터뷰에도 응해주신 <라 클라세 (La Classe)>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현충원 이용 안내

개방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참배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전시관 관람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 교통안내

지하철 4,9호선 동작(현충원)역 하차 4번 출구, 8번 출구

버스 지선 5524, 6411

간선 350,360,362,452,640,752

광역 9408

**발행처** 국립서울현충원

**발행일** 2023.6.12.

**홈페이지** [www.snmb.mil.kr](http://www.snmb.mil.kr)

**전화번호** 02 - 813 - 9625

**유튜브** @HEYLHY **블로그** @snmblove

**인스타그램** @seoulnationalcemetery

카카오톡에서 '국립서울현충원'을 구독하시면

매달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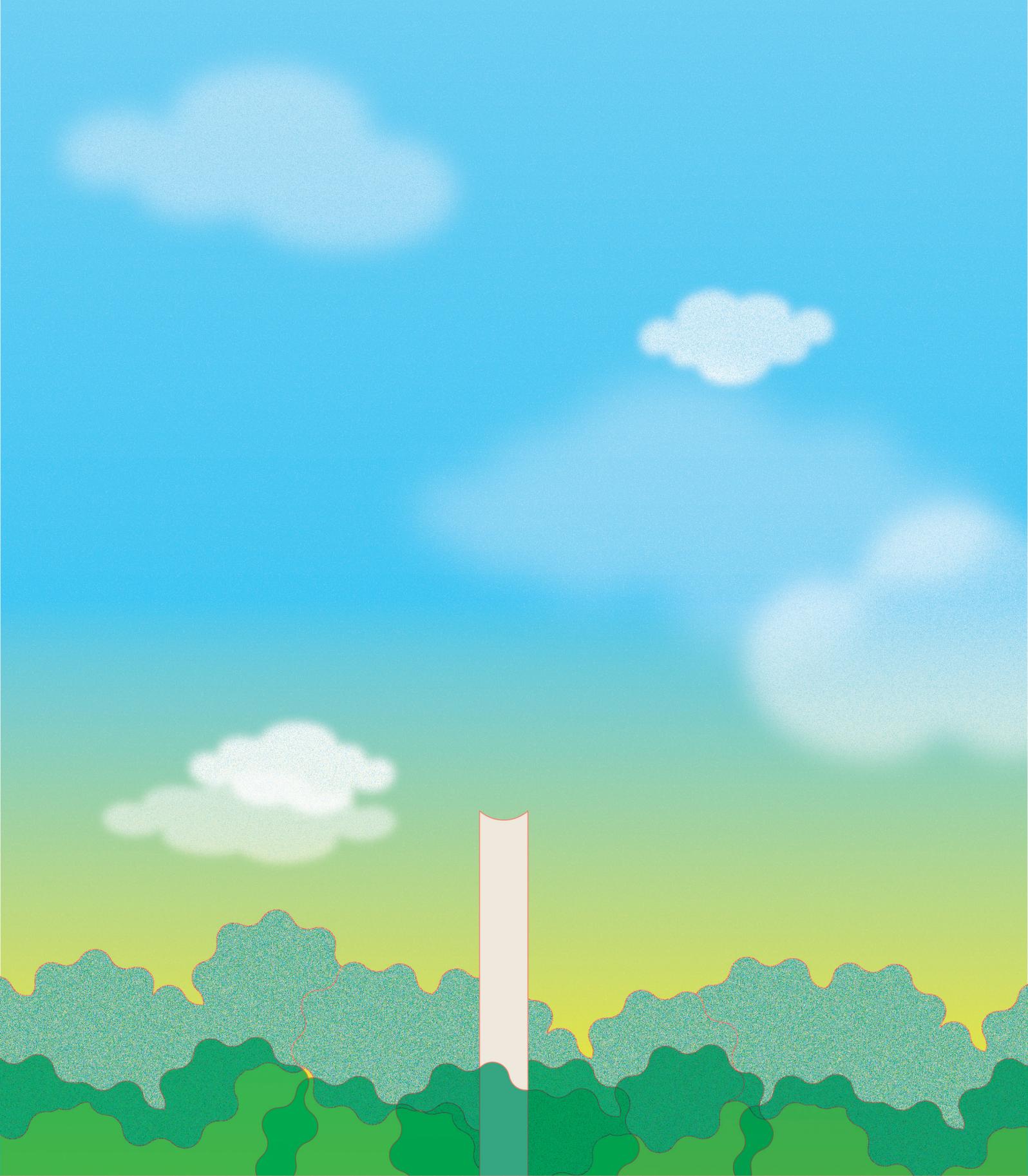
**시행** 에이플래닛

**디자인** 고대웅 **일러스트** 류지영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에 대하여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